

Market Index / 2일

코스피지수 ▲ 3043.87 +30.92	코스닥지수 ▲ 923.17 +9.23	유가(WTI, 달러) ▼ 60.64 -0.86	환율(원) 1USD 1144.17 100¥ 1070.57	살매 1104.83 1033.75	팔매 1376.53 182.28	살매 1322.83 164.92
---------------------------	-------------------------	------------------------------	------------------------------------	-----------------------	----------------------	----------------------

제주산 만감류 가격 유례없는 호조세

2월 한라봉·천혜향 경락가 작년보다 60~80% 올라
예년보다 낮은 설에 타 과일값 상승 등 복합 작용

한라봉과 천혜향 등 제주산 만감류 가격이 2월에 모처럼 높은 값을 형성하면서 3월에도 가격 호조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올해는 설 명절이 2월 중순으로 예년보다 늦은 편이어서 맛있는 만감류가 출하돼 가격 상승을 이끌었는데, 사과·배 등 다른 과일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가격 오름세와 오렌지 수입량 감소, 3월 이후 만감류 출하능가에 장려금 지급 등도 가격 호조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월 농협제주지역본부와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의 가격정보에 따르면 2월 한달 국내 9개 도매시장의 한라봉(3kg) 평균경락가격은 1만5548원

으로 집계됐다. 2018년산(9080원)에 견줘 71.2%, 2019년산(8459원) 대비 83.8% 높은 가격이다. 한라봉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고전하던 농가들에게는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었다.

2월 레드향 평균 경락가격(3kg)도 2만4084원으로 2018년산(1만5922원), 2019년산(1만2823원)에 비해 많게는 갑절 가까이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천혜향(3kg) 가격도 2018년산(1만2978원)과 2019년산(1만1791원)보다 각각 47.5%, 62.4% 비싼 1만9147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만감류의 가격 호조세는 최고의 대목인 설 명절이 예년보다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늦은 2월 중순에 찾아오면서 맛있는 만감류가 시장에 출하돼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은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설 명절을 전후해 산지에선 만감류 물량 소진 애기까지 돌면서 산지유통센터(APC)마다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제주산 만감류에는 호재로 작용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정보를 보면 2월 후지사과(상품 10kg) 도매가격은 6만5854원으로, 2020년 2월(3만6335원)과 2019년(3만8741원) 대비 각각 81.2%, 69.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신고배(상품 15kg) 도매 가격도 7만8598원으로 2020년 4만5078원, 2019년 5만612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1월에 수입된 오렌지 물량도 3988t으로 전년 동월(5867t)에 비해 감소세가 뚜렷했다. 이와 함께 행정에서 만감류 수입증절을 위해 3~4월 지역 농·감협을 통해 계통출하하는 한라봉과 천혜향에 대해 kg당 최대 500원을 지원하는 출하장려금도 2월 가격 호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농협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설이 예년보다 늦어 만감류 특유의 신맛이 빠져 당도가 좋은데 사과·배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만감류가 명절 선물 수요 등으로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며 “3월 이후 한라봉과 천혜향 가격은 수입오렌지 물량 증감 여부와 대형마트 할인행사, 온라인 택배 지속 여부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공정거래위, 숙박업 가업업체 실태조사 “불공정 거래 경험… 수수료도 과도”

숙박업 가업업체 대다수가 숙박업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 중개거래 플랫폼(숙박업)에 가입한 500개 중소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숙박업 활용업체 예로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40.0%였으며, 유형별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 지연 관련(23.6%),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20.0%) 순으로 조사됐다.

또 숙박업으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한 사업자는 31.2%로 조사됐으며,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고료 및 수수료 부과 관련 두 업종 모두 판매금액 대비 일경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숙박업 97.6%, 앱마켓 100%), 숙

박업의 경우 평균 10.6%, 앱마켓의 경우 대부분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고 답했다.

특히 중개수수료 수준에 대해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숙박업 80.0%, 앱마켓 80.8%로 다수의 사업자가 수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숙박업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62%이며, 광고비 지출 이유는 ‘더 큰 매출을 올리기 위해’(57.4%), ‘노출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42.6%),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28.4%) 등으로 조사됐다.

숙박업 입점사업자의 월 평균 지출 광고비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인 29%가 가장 높았으며, 대다수의 업체(전체 응답자의 84.5%)가 광고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 준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65.8%였다. 이태윤기자

제주지역 중소기업 경기 3월도 어둡다

중기중앙회 경기전망조사
지수 61.7 전월비 3.7%p ↓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달 15~22일 지역내 5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3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제주지역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는 61.7로 전월대비 3.7%p 하락했다. 이는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거리두기 여파로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지역 SBHI는 지난해 12월 97.5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올해 1월에는 63.4로 급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자 제주지역 SBHI는 전월대비 2p 상승한 65.4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여파로 3월에는 61.7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전망을 업종별로 구분하면 제조업은 전기 장비 부문이 하락세를 보여 5.6%p 하락한 57.7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은 종합 건설업, 임대업 부문이 하락해 전월대비 2.0%p 하락한 64.7로 나타났다.

항목별 전망은 고용수준을 제외한 항목 생산(63.3→57.7), 내수판매(67.9→60.0), 영업이익(64.1→58.3), 자금사정(67.9→60.0)이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지역 소상공인시장과 전통시장 경기 전망 기대치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2월 제주지역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37.5로 전월(37.5) 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그러나 3월 BSI 전망은 81.9를 기록해 전월(66.3) 대비 1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봄철 입맛 돋우는 취나물 수확 2일 제주시 애월읍 한 밭에서 농민들이 갓 뜯어난 취나물을 수확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노란우산 가입하세요 중기중앙회 3월 이벤트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 한달간 노란우산 가입 확대를 위한 ‘노란우산 1+1 가입촉진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벤트는 노란우산 기존 가입자가 주변 소기업·소상공인 친구에게 노란우산을 추천해 가입하는 경우 가입자 1명당 가입추천 장려금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한 10건 이상 추천해 가입시킨 상위 실적자 3인에게 포상금(1등 300만원, 2등 250만원, 3등 200만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노란우산은 출범 14년 만에 재적 가입자가 140만명(올해 2월말 현재)을 달성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안전한 유채나물·잎쪽과 생산한다

도농기원 잔류농약 모니터링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소비자들이 잔류 농약에 대한 걱정 없이 유채나물과 잎쪽파를 구입할 수 있게 이들 작물에 대한 안전생산 연구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유채나물 농약으로는 살균제 7 품목과 살충제 27 품목이, 잎쪽파에 농약으로는 살균제 85 품목, 살충제 110 품목 등이 등록돼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이 설정돼있다.

그러나 도농기원은 기후 변화와 재배 방법의 다양화로 병해충 발생

상황과 농약 잔류 특성이 다르기 나타날 수 있다며 보다 안전한 생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농기원은 시기별 병해충 발생 상황과 농약사용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수확 시기별 잔류 농약을 모니터링 한다.

한편 도내에서 유채나물과 잎쪽파는 각각 465t과 6500t이 생산되고 있다. 이상민기자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히트매진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2021년 3월 남품 예약마감
사전예약 특전(2년생 탕자대목) 2022년 3월 남품
예약기간 2021년 3월 10일까지

※히트매진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남진해(카라향), 제라몬,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굴,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대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귤 1,3,4년생
탕자대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혜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리랑,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상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귀주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1~5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